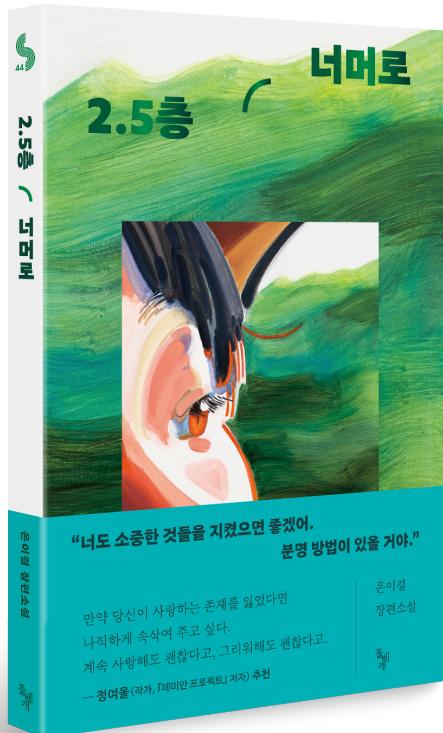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2.5층 너머로

작성자 : 전북 이리영등중학교 김담희 사서교사

학년 : 중학생

단계	차시	학습 단원 및 내용 활동
읽기 전	1차시	목차를 활용하여 줄거리 상상하기
읽기 중·후	2차시	시간적 배경 파악하기(순서도 작성하기)
	3차시	공간적 배경 파악하기
	4차시	인물의 시점에 따른 읽기
읽기 후	5차시	인상 깊은 문장 공유하기
	6차시	인물의 감정 이해하기
	7차시	인물의 슬픔 다루는 방식 찾기
	8차시	나만의 그림 일기장 만들기
	9차시	나만의 단어 사전 만들기

해당 독서 지도안은 중학교 수준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입니다. 크게 읽기 전중후 단계로 나누어 청소년들이 다각도로 온전히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읽기 수준과 수업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차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책의 목차, 추천사, 책 소개글 등의 정보를 살피며 소설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줄거리를 상상하며 읽기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읽기 중·후] 단계에서는 이 소설이 지닌 다양한 시공간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인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짚어 가고, 아진과 세나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시점과 감정 흐름을 파악하는 활동지를 구성하여 서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에 제시한 인상 깊은 문장 공유하기와 인물의 감정 이해하기 활동은 학생들이 선택한 문장을 매개로 해당 문장(혹은 장면)에서 드러나는 감정과 의미를 해석하고 공유하도록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독서 지도안은 특히 '인물'에 초점을 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독자들이 주인공뿐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읽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더불어 나만의 그림 일기장 만들기, 나만의 단어 사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소설이 보여 주는 '슬픔을 마주하는 태도'를 소설 밖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확장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층 너머로』는 서로를 혼자 두지 않고 곁에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슬픔을 함께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소설입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소설 속에서 관계의 가능성, 감정의 복합성 그리고 함께 기억하는 힘을 발견하고 해석하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좋은 애도의 서사가 더욱 필요한 지금, 청소년 독자들이 이 소설을 통해 슬픔과 회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기를 바랍니다.

| 1차시 | [읽기 전] 목차를 활용하여 줄거리 상상하기

책을 읽기 전, 책 제목, 표지, 목차, 작가의 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 소개글, 추천사 등의 정보를 미리 살펴보고, 앞으로 이어질 책의 내용을 상상하여 예상 줄거리를 작성해 봅시다. 이때, 아래 목차 중 일부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목차		
1. 기다렸지만 원하던 것이 아닐 때	9. 늦게 온 마음	17. 배웅할 걸 그랬어
2. 빈 책상마저 없던 날	10. 거북 등에 붙은 따개비	18. 모른 척해 주는 시간
3. 여름 불면과 자전거	11. 아무튼 있었던 존재감	19. 틀리게 말하는 진심
4. 침범하지 마시오	12. 나눠 갖지 않은 비밀	20. 방학의 끝은 스릴러
5. 창밖의 목소리	13. 한밤의 소란	21. 나를 감싸는 빛무리
6. 비밀번호 738	14. 가짜 화해, 진짜 안부	22. 그건 아마 너일 거야
7. 적응하면 그만	15. 다녀간 여름을 맞으려	
8. 날짜뿐인 일기장	16. 믿기 힘든 우연	

내가 고른 목차:

예상 줄거리:

| 2차시 | [읽기 중·후] 시간적 배경 파악하기(순서도 작성하기)

아진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시간 순서에 맞게 작성하며 요약해 봅시다.

주요 내용

핵심 문장

《작성 방법》

-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한다.
- 사건의 흐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사건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 사건의 순서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의 예: 등장인물의 나이 혹은 학년을 추론할 수 있는 단어, 연도, 시간 혹은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 우선, 다음으로, 하는 동안에, 그 전에, 동시에, 내일, 곧, 항상, 그 후에, 마지막으로, 마침내, 여전히, 오늘날, 지금은, 할 때 등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중학교 1~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 이전②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③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 3차시 | [읽기 중·후] 공간적 배경 파악하기

소설 속에 등장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 봅시다.

《작성 방법》

-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공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 인물의 이동 경로나 공간의 변화를 따라가며, 각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인물의 감정을 연결해 본다.
- 공간의 의미나 분위기가 이야기의 전개와 인물의 성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생각하며 정리한다.
-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의 예
 - 장소 이름: 교실, 옥상, 학교, 2.5층 계단참, 강가, 자전거 도로, 버스 정류장, 운동장, 복도 등
 - 이동이나 전환을 나타내는 표현: ~에서 → ~로, ~을 떠나, ~에 도착해, ~으로 향해, ~을 지나, ~에 머물며, ~으로 돌아와, ~을 찾아가, ~에서 만나다 등

제뉴 소품샵(24시 동물병원, 종식당 금성각 등)

하송중학교

구안동 봉수대 인근

행정복지센터 인근, POP몰

| 4차시 | [읽기 중·후] 인물의 시점에 따른 읽기

글을 읽고, (가)인물의 시점에 따라 중요한 문장과 (나)해당 인물의 시점에서 해석한 글의 내용을 다음 표에 정리해 봅시다.

※ 이 외에도 여러 등장인물 중 학생이 직접 선택하여 인물의 시점에 따른 읽기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물 항목]을 빈칸으로 제시합니다.

주제	인물의 시점에 따른 읽기	인물 항목	(나) 해석한 내용 (나)	(가) 중요한 문장	(나) 해석한 내용 (나)
		① 손아진(화자)			
		② 정세나			
		③ 김진규			
		④ 박은제			
		⑤ 보희			

| 5차시 | [읽기 후] 인상 깊은 문장 공유하기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문장을 고른 후, 다음 카드 앞면에는 쪽수와 선택한 문장을 적고, 뒷면에는 그 문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으세요.

쪽

쪽

쪽

쪽

쪽

쪽

의견을 쓴 후 카드를 모은 다음 문장을 적은 면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해당 문장을 모둠원들이 미리 책에서 찾아 읽고 그다음 한 학생이 자기 카드의 앞면에 적어 두었던 문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옆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의견을 말하면, 그 진술을 적었던 학생이 끝으로 의견을 말합니다.

| 6차시 | [읽기 후] 인물의 감정 이해하기

다음 장면에서 인물이 느꼈을 법한 감정 단어를 고르고, 그 감정을 선택한 이유를 작성해 봅시다. 이때 어떤 감정을 골라도 괜찮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감정은 모두 자연스럽고 존중 받아야 합니다. 장면 속 인물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장면의 어떤 부분이 그 감정과 연결되는지 생각하며 적어 봅시다.

《장면 카드》

얼떨결에 그러자고, 세나의 제안을 승낙해 버렸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다.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 세나는 공유 킥보드를 빌렸다. 우리는 오래된 초등학교로 향했다. 나는 킥보드를, 세나는 자전거를 탔다. 오르막에서는 번갈아 가며 자전거를 끌었다. 세나는 언덕을 다 오르면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양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린 채로 내리막을 내달렸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에서도 가능했다. 나는 공포와 흥분에 훨씬여서 꽥! 꽥! 비명을 질러 대며 킥보드를 타고 따라갔다. 세나가 멀어지는 속도를 보는 것 만으로도 겁이 났다. 그럼에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한바탕 웃고 나면 시린 바람이 가슴 가득 들어찼고, 어느새 다시 채워진 웃음이 탄산 기포처럼 터져 나갔다.

(중략)

우리는 팔꿈치로 서로를 밀치며 웃었다. 손에서 놓친 자전거가 힘없이 쓰러지는 게 우스워서 또 깔깔댔다.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거렸다. 창피하다는 눈빛을 교환하면서도 벙글벙글 도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세나가 초등학교 내내 왕따를 당한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본 세나는 재미있고 웃음 많은 아이였다.

—『2.5층 너머로』 89~92쪽.

《감정 카드》

설레다	조마조마하다	침잠하다	아슬아슬하다	주저하다
동요하다	머뭇거리다	벅차오르다	아리다	해방감을 느끼다
전율하다	겁이 나다	어렴풋하다	망설이다	압도되다
위축되다	애틋해하다	불안하다	짜릿하다	환희하다
막연하다	어수선하다	알쏭달쏭하다	허전하다	들뜨다
고양되다	멍하다	뒤숭숭하다		

※ 위 활동지 중 장면, 감정을 각각 카드 형태로 만들어 교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장면 카드를 제시하고,
해당 장면에 어울리는 감정 카드를 준비하여 다양한 감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학생들과 함께 장면 카드와 감정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7차시 | [읽기 후] 인물의 슬픔 다루는 방식 찾기

이야기 속 인물들은 슬픔을 맞이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책을 읽으면 각 인물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거나 감정을 마주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문장이나 장면을 찾아 적어 봅시다. 그 장면 속에서 인물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뎌 내는지 정리해 봅시다.

《 예시 》

인물	문장, 장면	인물의 특징(혹은 성격)
손동우	동우는 책장 중앙에 엄마 사진을 세워 두고도 현주 씨를 엄마라고 불렀다. 현실에서 안전장치를 찾은 것이다.(182쪽)	엄마를 자주 들여다보고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줄 대상을 찾는다.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방법, 타인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도움은 각자에게 다르게 존재합니다.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 뒤 슬픔이 찾아올 때 나를 돌보는 방식, 혹은 슬퍼하는 사람 곁에 서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떠올려, 다음 예시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문장 구조 예시》

- 나는 슬픔이 찾아올 때, _____ 하며 나를 돌본다.
-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나는 _____ 해 주고 싶다.
- 이 책을 읽고 나니, 슬픔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_____라는 생각이 들었다.

| 8차시 | [읽기 후] 나만의 그림 일기장 만들기

아진에게 일기장은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터놓고, 좋아하는 것을 지키는 용기를 내는 도구입니다. 일기장은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떠 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작성 방법》

- 감정을 적어도, 생각을 적어도, 단어 하나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 그림이든, 일기든, 낙서든 지금 나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 마음이 불편하면 빈칸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 이 활동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되는 글입니다.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
제목:				
<hr/> <hr/> <hr/> <hr/> <hr/>				

| 9차시 | [읽기 후] 나만의 단어 사전 만들기

글을 읽고, 아래 소설 속 주요 단어와 관련된 개념 정의 지도를 그려 봅시다. 사전이나 책 속에서 읽은 내용,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 소설 속 주요 단어 〕

자전거	일기장	2.5층
불면	애도	장미꽃

※ 위 주요 단어는 수업 활동지 작성 전 교사 혹은 학생이 직접 찾아 추가·수정이 가능합니다.

단어(개념)	자전거
사전적 의미	
책을 읽고 내가 정의한 의미	

단어(개념)	일기장
사전적 의미	
책을 읽고 내가 정의한 의미	

단어(개념)	2.5층
사전적 의미	
책을 읽고 내가 정의한 의미	

단어(개념)	불면
사전적 의미	
책을 읽고 내가 정의한 의미	

단어(개념)	애도
사전적 의미	
책을 읽고 내가 정의한 의미	

단어(개념)	장미꽃
사전적 의미	
책을 읽고 내가 정의한 의미	

※ 주요 단어 개수에 따라 개념 정의 지도 활동지를 추가 작성하여 제시합니다.